

나의 하하를 찾아서

차영아 글 · 다나 그림 | 문학동네

교과 연계

〈국어 2-1〉 5. 마음을 짐작해요

등장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며 읽을 수 있어요.

〈국어 2-2〉 1. 장면을 상상하며

사건이 펼쳐지는 장면을 상상하며 읽을 수 있어요.

〈국어 3-2〉 1. 경험과 관련지으며 이해해요

내 경험을 책 내용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어요.

책 소개

아주 작은 아기였을 때부터, 상이 곁에는 늘 파란 하마 인형이 있었어요. 얼굴의 반이나 되는 큰 입으로 웃는 하마의 이름은 ‘하하’랍니다. 상이의 세상 가장 소중한 친구이지요. 유치원을 졸업한 상이는 이제 하하와 떨어져 혼자 학교에 가야 한대요. 그런데 초등학교 입학식 날 아침, 하하가 사라졌어요! 상이는 하하의 흔적을 찾다 이불 속으로 엉금엉금 기어갑니다. 이불 속은 컴컴하고 추운 동굴이었고, 그 끝에서 광활한 초원이 펼쳐집니다. 세상에, 이 넓은 데서 어떻게 하하를 찾지요?

활동1

“혹시 파란 하마 봤나요?”

상이는 하하를 찾아 나섰다가 초원에서 여러 동물들을 만나요.

상이가 만난 동물들을 차례대로 연결해 보세요.

상이가 누구를 만나 무슨 일을 겪었는지,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상이는 코끼리에게 도와 달라는 말을 듣고

미어캣은 상이에게 ‘너와 나의 연결고리’를 알려 주며

상이는 가장 용감한 뿐의 상처를 보고는



상이는 탕탕호수에서 하하를 만났어요. 하하가 여기에 온 이유는

상이와 하하는 악어에게 잡힌 아기 누를 구하기 위해

다시 만난 코끼리 형 덕분에

활동2

너와 나의 연결고리

‘가장 용감한 뿔’은 풀을 먹는 모든 동물들의 영웅이에요.

상이는 가장 용감한 뿔의 상처를 보고 자신의 상처도 보여 주게 되지요.

가장 용감한 뿔과 상이의 어떤 점이 서로 닮았나요?



상이가 가장 용감한 뿔에게 어떤 마음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짐작하여 말풍선에 적어 보세요.

깃발? 이렇게 귀한 걸 나한테 주다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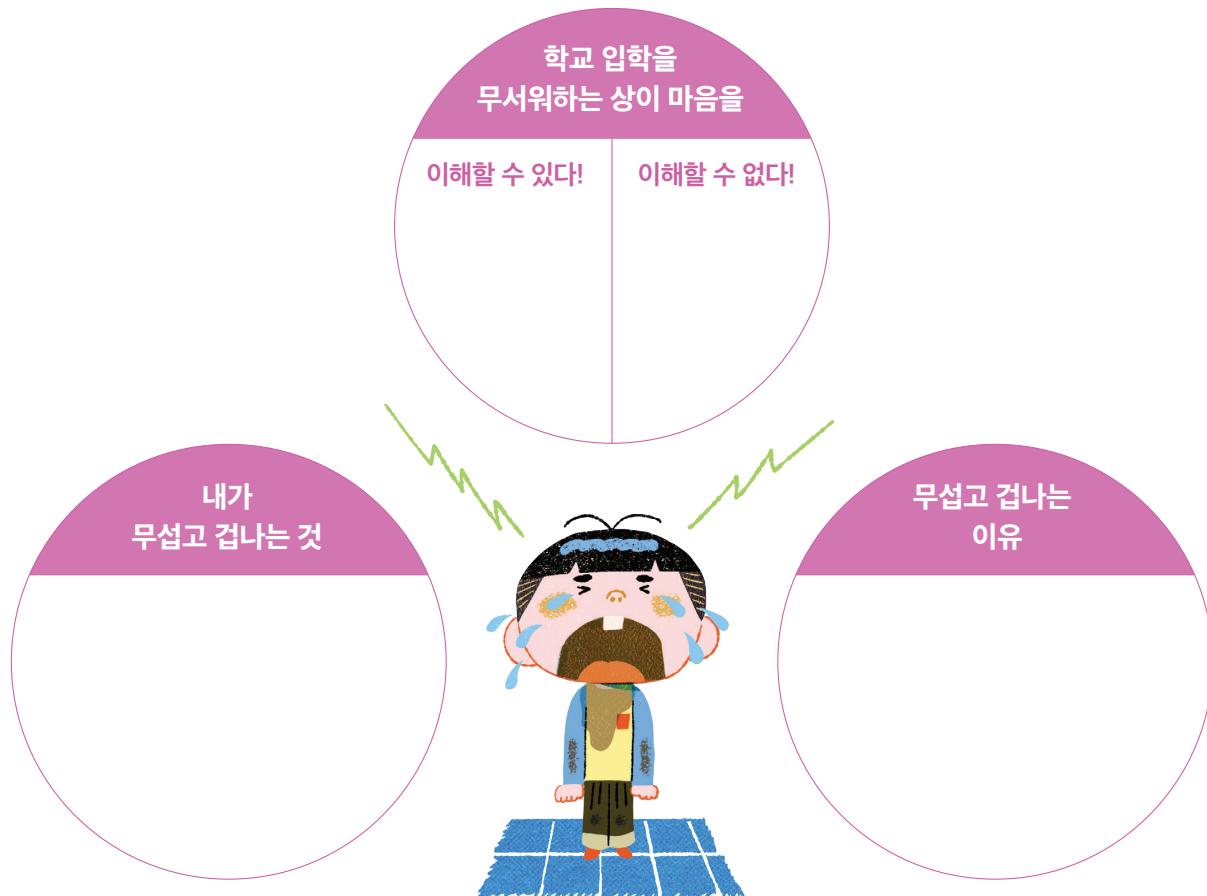
활동3

무섭고 겁나는 것

상이도, 가장 용감한 뿐도 무섭고 겁나는 게 있어요.

나는 어떤 것이 무섭고 겁나는지 생각해 보고,

내가 생각하는 ‘용기’란 무엇인지 써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용기란?

상이의 용기 있는 모습은?

갑자복음에 밥을 뚝딱 먹고 가슴을 내밀고 학교 운동장을 걷는 것!



나의 용기 있는 모습은?

활동4

용감 씨, 어서 나오세요.

상이의 눈물 저주를 푸는 ‘날아간다!’ 놀이나 마음속 용감 씨를 깨우는 주문처럼
기분을 푸는 나만의 방법, 용기를 내는 나만의 주문을 만들어 보세요.



기분이 안 좋을 때
쓰는 나만의 방법은 이거야!



마음속 용감 씨를 깨우는
나만의 마법 주문을 만들어 볼래!